

제9장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하는 본

성경 : 살전 1:5-8, 2:1-20, 살후 3:7, 9, 벤전 5:2-4.

I.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이 교회를 위한 거룩한 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해 양육의 방면을 관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살전 2:7-12, 앱 5:29 각주 1.

- A. 바울은 사도들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생각했다. 그들은 믿는 이들을 자신들의 자녀들같이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마치 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을 관심했다 — 살전 2:6하-7, 11.
- B.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젊은 사람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은 이 책에서 따라야 할 지침과 개요를 얻을 수 있다 — 살전 1:3 각주 1.

II. [◆] 바울이 어린 믿는 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주로 정상적인 생활의 본이었다. 이 본은 사실상 바울 자신이었다 — 살전 1:5, 2:10, 살후 3:7-9.

- A.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았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단지 말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 즉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수행된 것이었다 — 살전 1:5.
- B. 사도는 자신의 일행이 믿는 이들에게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거듭하여 강조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안으로 복음을 주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살전 1:5, 9, 2:1.
- 1. 그들은 한 면으로 싸우며 한 면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였다 — 살전 1:2.
- 2. 사도들에게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이 없었다 — 살전 1:3.
- 3.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이었다 — 살전 1:4, 시 139:23-24.
- 4. 사도들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었다 — 살전 2:5.
- 5. 사도들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 살전 2:6상.
 - a.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에게 실지적인 시험이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사로잡히고 손상되었다 — 삼상 15:12.
 - b. 천사장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된 것은 그가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이들은 사탄의 추종자이다 — 갤 28:13-17, 사 14:12-15, 마 4:8-10.
 - c.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쓰임을 받을 것인지, 우리의 유용성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다 — 요 7:17-18, 5:39-44, 12:43, 고후 4:5.
- 6.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지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

엄을 구하지 않았다 — 살전 2:6상.

7. 사도들은 믿는 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열렬히 사랑했는데,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고 열렬히 사랑하는 것처럼 했다 — 살전 2:7-8, 17, 갈 4:19, 사 49:14-15, 66:12-13.
8.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자 했다 — 살전 2:8, 고후 12:15.
9. 사도들은 자신들을 아버지로 여기며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유했다. 이렇게 생활하고 행동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될 수 있었다 — 살전 2:11-12.

III. ♣ 양육하는 일은 믿는 이를 목양하는 일이다. 그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이 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삶으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했다 — 살전 2:1-12, 고후 1:23-2:14, 고전 9:22, 행 20:28.

- A.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본이요, 모형이다. 부모의 모든 어떠함은 또한 자녀의 어떠함이 될 것이다. 본받는 것은 성장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를 모방하면서 성장한다 — 살후 3:9, 히 13:7.
- B.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과 어린 믿는 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을 양육하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합당한 길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본을 보여 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고 공급하는 것이며 젖을 먹이는 것이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 고후 3:6, 고전 8:1하, 살전 2:8.
- C.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근원과 기원은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 살전 2:13, 히 4:12.
- D.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 — 살전 2:14.
 1. 데살로니가의 믿는 이들은 틀림없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한 일들을 들었을 것이며 이러한 소식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이들이 자라도록 그들을 양육했을 것이다 — 살전 2:14.
 2. 어떤 것도 다른 성도들과 교회들에 관한 참된 이야기만큼 교회와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행 27:21 각주 2, 롬 16:4, 13.
- E. 예방 접종의 말씀 역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의 일부였다. 예방 접종조차도 양육에 포함된다. 바울이 믿는 이들에게 준 예방 접종은 장래 결국 있게 될 유대교도들의 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살전 2:15.
- F. 바울은 자신의 일행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던 것을 가족과 사별한 것, 곧 그들을 보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손실에 비유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 살전 2:15-17.

IV. ♣ 주님과 동역하여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품행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한다. 이 보상은 우리의 면류관과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가 양육한 믿는 이들일 것이다 — 살전 2:19-20, 벤전 5:3-4.

- A. 사도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돌보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 살전 2:19-20.
- B. 20절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이고 권유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인 믿는 이들이 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을 떠나서는 사도들에게 소

망이나 영광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없었다 — 살전 2:19-20.

C.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 벤전 5:4, 마 24:45-47.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교회를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양육함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두 가지 주된 요점, 즉 교회를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와 교회를 위한 거룩한 생활의 기원을 다룬다. 그 구조는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구성된다. 이같은 생활은 복음 전파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결과는 바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늘들에서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2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거룩한 생활의 세 번째 방면인 양육에 이른다.

비록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양육’이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양육의 사실은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도들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생각했다. 이것은 사도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믿는 이들을 그들의 자녀같이 보살피고 양육하면서 마치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을 관심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양육하는 본을 본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12장)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가 새신자, 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젊은 사람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은 이 책에서 따라야 할 지침과 개요를 얻을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 개요와 지침을 따른다면 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일에 있어서 좋은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15장)



회복 안에서 우리가 생명보다 일을 더 높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